

배포일시	2018. 11. 13.(수) 11:30 (총 3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허복행 사무관 유재익	전화번호	042-863-0367

**충남 대설 재난, 민·관·학이 함께 대비한다.**  
 - 대전지방기상청, 충남 대설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 개최 -

-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손승희)은 보다 나은 정부혁신 구현을 위해 충청남도청과 공동 주최,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충남 대설 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을 11월 12일(화), 호텔머드린(충남 보령)에서 개최하였다.
- 충남 대설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남도청, 국립기상과학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충남연구원, 공주대학교, 충남 자율방재단 등 민·관·학의 9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 대전지방기상청의 김달순 예보관의 ‘충남지역 대설 발생 특성 및 원인분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충남지역 대설에 의한 재해 특성 연구(김백조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장) ▲농업에 미치는 대설피해 현황 대책(김양섭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재해대응팀장) ▲대설 피해 저감을 위한 지자체 정책지원 방향(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 등 주제발표를 하였다.
- 발제자로 나선 김달순 예보관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악지형과 해안선에 따라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충남의 대설 특성을 언급하며, 구름대의 높이가 낮은 경우 관측이 약하게 되는 경우 등을 들어 방재 기상밴드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김백조 센터장은 대설 발생빈도는 강원지역이 많으나, 피해액은 충청지역이 크고, 또한 최근 대설 피해지역은 기존 피해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김양섭 팀장은 대설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현황을 지적하며,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업인의 재해예방 기술에 대한 의무화를 제시했다.
- 조성 센터장은 대설특보와 신적설이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주요 도로 및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피해대비 및 제설작업을 위한 예산과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사전 충원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과 폭설 취약지도 및 폭설 대응 매뉴얼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송두범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의 좌장으로 허복행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장은철 공주대학교 교수, 김종기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김성수 강원도 농업기술원 팀장 등이 참석해 충남지역 대설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충청도 지역의 대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계와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설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충남 대설피해 저감을 위한 포럼” 사진**

